

# 통학버스 위탁업체 안전의식 엉망

겹치기 계약에 차량 부족 일쑤... 안전점검도 의문

## 18일 모여고 비탈길 사고 운전사 사망

지난 18일 광주 모 여고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비탈길 사고' (광주일보 1월 19일 6면)는 차량 결함과 함께 운전사나 학생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채 수익만 높이려는 업체의 운영방식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계약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대다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노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타 업체의 기사와 버스로 '뺑뺑'식 운행을 일삼아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사고 버스 속속 계약 업체와 달라= 경찰조사 결과 사고가 난 버스는 여고 측과 계약을 맺은 N운수업체의 버스가 아닌 C업체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여고 뿐 아니라 학원, 유자원 등 여러 곳과 계약을 맺은 N운수업체가 지난 18일 여고에 보낼 버스가 부족하자 C업체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C업체 운전사 김씨가 학교에 도착한 뒤 주차장이 아닌 비탈길에 버스를 정차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주차장에는 주차할 만한 여유 공간이 있었고 해당 학교와 계약해 운행중인 업체 기사들은 안전한 장소에 주차한 상태였다.

◇ 사고 버스 속속 계약 업체와 달라= 경찰조사 결과 사고가 난 버스는 여고 측과 계약을 맺은 N운수업체의 버스가 아닌 C업체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

광주지역에는 20여곳의 통학버스 운수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는 여러 사용자와 계약해 간혹 기사가 부족할 경우 '공동운수협정서'를 작성하고, 임시방편으로 주변 업체의 기사를 배정받기도 한다.

문제는 타 업체에서 임시로 온 기사가 노선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운수업체의 운영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갑자기 통보를 받고 낯선 곳에서 운전한다면 당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리고기 먹어도 걱정 없어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오리고기 소비가 줄어든 가운데 농협전남본부 임직원들이 19일 전남본부 식당에서 오리 훈제고기 시식회를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마로 돈 탕진 40대  
호프집서 흥기 강도

광주동부경찰은 19일 호프집 여주인을 흥기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아 도주한 정도(41·회사원)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도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김모(여·43)씨의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흥기로 위협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광주일보 1월 18일 6면)를 받고 있다. 정도씨는 경찰에서 "지난 수년간 경마에 빠져 돈을 탕진했다. 최근 50만원을 빚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수현기자 yang@

## 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취득

## 공무원 등 57명 무더기 적발

### 전북경찰 사이버수사대

근무 평점 가산점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공무원과 돈을 받고 이를 도운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고 가짜 현장 실습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증

을 취득한 혐의(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46·서울시청)씨 등 공무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김모(여·32)씨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수강과 120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현장실습만 거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승진평정 때 최대 0.5 점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습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이버대학교에 출석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복지시설 대표에게 10만~30만원을 주고 한 학기에 120시간을 실습한 것처럼 실습 이수확인서를 받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등록해 자격증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대부분 6~7급 공무원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실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수강과 120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현장실습만 거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승진평정 때 최대 0.5 점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폐품 주워 생계 50대 여... 전기마저 끊겨

## 가스버너로 몸 녹이다 '펑'

### "화상·병원비 걱정"

변변한 직업이 없어 폐지와 고철을 주워 판매한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박모(여·57·광주시 서구 양동)씨. 홀로 지내는 박씨는 최근 폐품 수집을 하지 못해 생활비가 바닥이 났고, 급기야 추운 날씨 속에 전기까지 끊기게 됐다.

박씨는 타 업체에서 임시로 온 기사가 노선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운수업체의 운영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갑자기 통보를 받고 낯선 곳에서 운전한다면 당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하는 소리와 함께 박씨는 "사람 살려"라며 소리를 질렀다. 부탄 가스가 과열돼 폭발해 버린 것이다.

결국 박씨는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 세들어 사는 박씨의 집은 폭발로 절반 가량이 불에 타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박씨는 당장 병원비를 낼 돈도 없어 더욱 걱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으면 추운 날씨에 난방도 하지 못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박씨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우침** (8225)  
김충우



## 신정환 귀국

"원정도박 혐의 인정"

경찰, 형사처벌 방침

방송인 신정환(36岁)씨가 국외 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지 넉 달여 만인 19일 오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본 하네다발 항공기편으로 김포 공항에 도착해 오전 11시10분쯤 입국장에 혼자 나타난 신씨는 청바지와 검정 짐과 차림에 회색 가방을 메고 흰 모자를 덮어썼으며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다.

신씨는 기자들이 "자금이 몇만 달러 있다는 소문이 맞느냐"고 묻자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경찰은 신씨의 도박 기간, 자금 규모 및 출처 등을 조사하고서 상습 도박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미곡 납품의뢰서 위조

## 17억 원 쌀 '돌려막기'

### 농협 전 직원 영장

위조한 납품의뢰서를 이용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액을 빼돌린 협력 전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은 19일 '미곡 납품의뢰서'를 위조해 17억원 상당의 쌀을 빼돌리기 위한 혐의로 보성지역 모 협력 전 직원 이모(35)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9월께 진도의 미곡처리장(RPC)에 위조한 납품의뢰서를 보내 20kg짜리 벼 1만1000포대를 충남 부여의 RPC로 납

품하도록 하는 등 63차례에 걸쳐 17억원 상당(6만3000포대)의 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빚 3억원 가량을 갚기 위해 미국 대금을 빼돌린 뒤 이를 맞추기 위해 진도·부여·등의 농협이 쌀을 납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쌀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4월 벌교농협에 범행이 탄로나 인사조치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 해킹으로 400만명 개인정보 판매

### 광산경찰 20대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19일 해킹을 통해 인터넷 성인사이트 회원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한 이모(20)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죄송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 백모(21)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해킹대회 수상 경력을 지닌 이씨는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집 PC를 이용해 인터넷 성인사이트(7곳)에 접속한 뒤 해킹을 통해 400만 명의 회원 정보를 입수, 중간판매책 김모(29)씨에게 2300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1시께 광주시 서구 신가동 한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임모(33)씨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동종의 소형 승용차 6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같은 종류의 차 6대 훔쳐  
창나팔  
차만 6대나 훔쳐  
탄 특이한 10대 2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배모(18)군 등 2명은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신가동 한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임모(33)씨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동종의 소형 승용차 6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친구사이인 이들은 해당 차종이 다른 차종에 비해 복제 열쇠를 넣었을 때 시동이 잘 걸린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에서 "호기심에 승용차 문에 다른 열쇠를 넣고 훔쳤는데 문이 열리고 시동까지 걸렸다"고 진술.

김씨는 "아내가 매일같이 술을 마셔 환김에 폭행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http://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매월